

조선시대 어보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서체 형태 연구

박윤성^{1*}, 김지수²

¹경기대학교 디자인비즈니스학부 교수, ²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석사과정

A Study on the Typeface of Font, the Shape Royal Seal of the ex-Emperor Sugang in the Joseon Dynasty

Yoon-Sung Park^{1*}, Ji-Su Kim²

¹Professor, Major of Designbiz, Kyonggi University

²Graduate Student, Major of Visual Design, Kyonggi University

요 약 인장은 개인이나 집단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한국을 포함한 주로 동양 문화권에서 많이 나타난다. 한국의 인장문화에서는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을 용도에 따라 국새와 어보로 분류한다. 국새와 어보는 서체를 사용하여 이름이나 직위를 나타내며 그 서체는 인장마다 다르고 시대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용하는 국새 이전의 모든 국새와 어보는 한자로 제작되었다. 본 논문은 어보를 통하여 타이포그래피의 구성요소를 분석하며 연구대상은 조선시대의 여러 어보 중 유일하게 8각 보면 어보인 『수강태황제보』이다. 어보의 외형적 형태가 아닌 보면(寶面)에 나타난 보영(寶影)은 각각 아름다운 서체와 비율로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이는 연구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인장의 특징에 대해 고증하고 『수강태황제보』의 보영 즉, 글씨를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 구성요소에 따라 수치, 구조, 형태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 속 타이포그래피의 아름다운 조형미를 확인한다.

주제어 : 어보, 인장, 수강태황제보, 타이포그래피, 서체

Abstract Seal is a tool to prove an individual or group. Guk-Sae and Eo-Bo uses typeface to represent their names or titles, which change from tensile to tensile and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Although the Korean alphabet currently uses Hangul, it had used Chinese characters before Hun-Min-Jeong-Um was created in 1443. All seals and royal seal before the Korean Seal of State were made in Chinese characters. This thesis analyzes the concept of typography through the royal seal,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Sugang Emperor' which is the only eight-letter version seal of the Joseon Dynasty's various royal seal. Bo-Yeong, which is shown in Bo-Myeon has artistic value with beautiful typeface and proportions, which is worth research. It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Korean seal, analyzes and studies the typeface shape and features from the typographic perspective of the "Sugang Emperor Bo-Yeong," or writing.

Key Words : Royal seal, Font, Type, Typeface, Typography

*Corresponding Author : Yoon-Sung Park(yspark@kgu.ac.kr)

Received October 1, 2019

Accepted Nov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6, 2019

Published Nov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장(印章)은 개인이나 집단을 증명하고 상징하는 도구이다. 과거 조선시대 국가를 대표하는 인장으로는 크게 국새(國璽)와 어보(御寶)가 있다[1].

국새는 국가를 상징하며 왕위 계승 시 선양의 징표인 동시에 외교문서나 왕명 문서 등 실무적으로 사용하였다[2]. 어보는 임금이나 왕비의 덕을 기린다 하여 올리던 칭호인 존호, 제왕이나 재상¹⁾, 유현²⁾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인 시호, 황제나 왕이 죽은 뒤 종묘³⁾에 신위를 모실 때 붙이는 호인 묘호⁴⁾ 등이 올려질 때 제작하여 사용했다[3].

인장에 글자가 새겨진 면은 인면(印面), 어보에서는 보면(寶面)이라 불린다. 보면은 주로 한자 서체인 전서로 쓰이며 아름다운 서체와 비올로 예술적 가치를 갖지만 어보의 형태에 비해 보면은 아직까지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 특히 각 어보별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면의 글씨는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 연구 가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보 중 하나인 『수강태황제보』를 디자인에서 기초가 되는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 고딕체의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인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고 우리나라의 인장문화를 고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수강태황제보는 2014년 4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반환된 9점의 인장 중 하나로써 1907년 순종황제가 퇴위한 고종황제 '수강'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어보이다.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수강태황제보는 조선시대 어보 366점 중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유일한 8각 형태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4].

본 연구에서는 수강태황제보 보면의 형태를 분석한다. 옥책⁵⁾에 새긴 송덕문인 '옥책문'을 참고하여 보면의 서체

- 1) 재상(宰相):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 2) 유현(儒賢): 유학에 정통하고 언행이 바른 사람
- 3) 종묘(宗廟):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 4) 묘호(廟號):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
- 5) 옥책(玉冊): 제왕이나 후비(后妃)의 존호를 올릴 때에 그 덕을 기리는 글을 새긴 옥 조각을 엮어서 만든 책

를 박물관자료를 참고로 하여 진행한다[5](Fig. 1 참고).



Fig. 1. The Collection of texts in the Jade Book for the Bestowal of Honorable Title upon Emperor Gojong

2. 본론

2.1 어보의 역사적 고찰

2.1.1 인장문화의 흐름

인장의 기원은 주로 현전하는 유물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를 통해 추측하고 있으며, 대략 기원전 3,5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인장문화를 미술의 한 장르인 조각예술로 계승한 나라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 불과하다. 한국 국새에 관한 기록은 증보문헌비고에 부여 예왕의 국새인 '예왕지인(濊王之印)'에 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되었다. 또한 고구려시대는 『삼국사기』, 고려시대는 『고려사』의 '인장'조, 조선시대는 『증보문헌비고』의 '새인'조에서 국새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6]. 조선시대 헌종은 궁궐에 국내외의 인보를 수집하여 <보소당인존>을 편찬하기도 하였고, 고종은 화제로 인해 많은 인장들이 망실되자 다시 복각하여 보장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 왕실이 인장 문화를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알 수 있다[7].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을 한글로 가로 새기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사용한다.

2.1.2 어보의 의미

한국의 인장은 고대, 중세의 자료가 부족하여 온전한 분류가 어려우므로 현재로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국새', '옥새'는 '어보'에 비해 비교적 익숙한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의 차이는 불명확하다. 많은 자료에는 국새는 '국가의 상징이자 국가적 문서에 사용되는 국가의 인장'으로 국왕의 각종 행사 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의 앞에서 봉송하기도 했다. 옥새는 '옥으로 만든 국새' 혹은 '황제가 사용하는 인장'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실의 어보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인장'으로 왕비와 왕세자, 왕세손과 그 빈들의 책봉 때에 제작(책봉보인)하기도 하고 왕실의 선조에게 존호를 올릴 때 제작(존호보)되기도 한다. 또한 사후에 시호를 올릴 때(시호보), 국왕이 승하하였을 때(묘호보) 등이 있다 [8]. 왕실인사의 책봉 때에 제작된 인장은 국왕과 왕비 외에는 모두 '인'자를 써서 '보'와 구별하였고, 존호와 시호, 휘호와 관련한 인장은 '보'로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왕조의 영속성과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한다. 이 밖에도 조선왕실의 인장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사인 등이 있다[9].

2.1.3 어보의 서체와 상징

인장에 글자가 새겨진 면은 인면이라 불리며 어보에서는 보면이라 불린다[10]. 보면은 아름다운 서체와 비율로 예술적 가치를 갖는다. 인장을 새기는 행위, 또는 새겨진 인장을 '전각⁶⁾'이라 하듯이 여기에 쓰이는 서체는 전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어보에 사용한 서체는 대부분 구첩전(첩전, 혹은 상방대전)이며 인전의 한 형태로 필획을 중첩하고 쌓아 올려 인면을 가득 채우는 서체이다. 필획이 많이 중첩된 경우 10첩 이상인 경우도 있다. 첩전은 어보와 관인에 사용한 특별한 서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하였다. 조선시대 전기기간에 걸쳐 사용하였던 Fig. 2의 상방대전(구첩전 혹은 첩전)은 대한제국기로 넘어오면서 큰 변화를 보이며 대부분 간명한 '소전'으로 바뀌었다. 소전은 전서의 일종으로 발생국의 명칭을 따 진전이라고도 하며 대전과는 상대 개념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승상 이사로 하여금 만들게 하였다고 전한다. 소전은 이전의 문자에 비해 균일하며 좌우 대칭의 정제된 형태로 나타나 제왕의 냉엄한 권위를 상징한다. 대한제국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하여 온 구첩전에서 탈피하여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소전에 담아 어보의 서체에도 반영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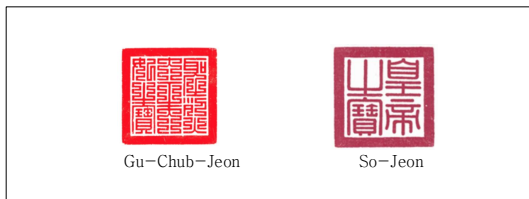


Fig. 2. Gu-Chub-Jeon and So-Jeon

2.2 타이포그래피의 이해

2.2.1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인류 탄생 이후 말을 기호 체계로 만들어 모래, 나무, 돌, 종이에 새기게 된 문자는 현재까지도 소통의 도구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글자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는 활자로 디자인하는 과정과 그 결과였는데, 매체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역이 점차 넓어졌다.

타이포그래피의 역할은 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더 큰 범위로 본다면 활자를 디자인하는 기술을 말한다. 타이포그래피는 정보전달을 넘어서 그래픽 디자인이다. 글자 날개가 모여 만들어지는 단어, 단어가 모여 문장, 문장에서 문단까지 정확성과 질서가 있는 디자인 분야이다.

2.3 수강태황제보와 타이포그래피

2.3.1 수강태황제보의 제작배경

고종은 아들 순종에게 양위한 뒤 환제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12]. 1907년 황위를 물려받은 순종이 아버지인 고종에게 '수강(壽康)'이란 존호를 올리면서 어보를 만드는데 이 어보가 수강태황제보이다[13](Fig. 3 참고).



Fig. 3. Royal Seal of the ex-Emperor Sugang

수강태황제보는 2014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계되어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를 한 조선왕실 9점의 인장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의 다른 정방형 어보들과는 달리 수강태황제보는 8각 형태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유물이다.

수강태황제보는 용 모양 손잡이(용뉴) 아래에 2단의 보대로 제작되었으며 보면의 형태는 8각이다. 8각의 측면에는 주역의 8괘가 새겨져 있다. 용은 8괘의 건이 새겨진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다. 입에 여의주를 문 머리와 동글게 위로 구부린 등, 비늘이 가득한 몸체를 부조하듯 새겨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보인다[14].

6) 전각(篆刻): 나무, 돌, 금속 따위에 인장을 새김. 또는 그런 글자. 흔히 전자(篆字)로 글을 새긴 데서 유래한다.

2.3.2 수강태황제보의 보면

어보에서 글씨가 있는 바닥면을 보면(寶面)이라한다 (Fig. 4 참고). 이 보면을 종이에 찍은 모습을 보영(寶影)이라 하는데 수강태황제보 보영의 서체는 균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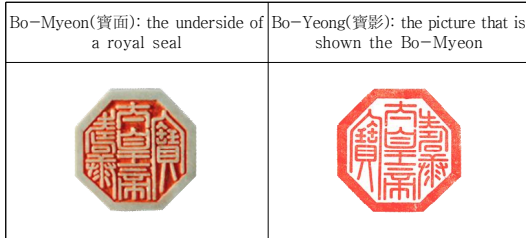


Fig. 4. Bo-Myeon and Bo-Yeong

수강태황제보는 가로, 세로 11.5mm의 정팔각형 어보이며 자세한 치수는 Fig.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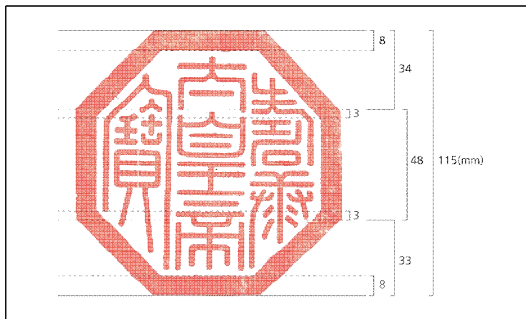


Fig. 5. Size of the Royal Seal of the ex-Emperor Sugang

2.3.3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 본 수강태황제보의 서체 형태

Table 1를 통해 타이포의 구성요소에 따라 수강태황제보의 보면을 분석하였다[15].

Table 1. Analysis table by Typo element

Element	Details element	Bo-Myeon
Concept element	Letter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Word	Placement by term
Visual element	Shape	Shape of strokes
Correlation element	Space between letters	Visual correction
	Grid	Grid
	Angle	Letter-shaped transform

2.3.3.1 구성요소

2.3.3.1.1 한자의 획수

수강태황제보는 중앙 ‘태황제’ 부분의 글자 면적은 균일하지 않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에 앞서 ‘수강태황제보’ 한자 획수와 형태의 연관성을 Table 2를 통해 정리 하였다.

Table 2. The number of strokes

Letter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Soo	Life Soo	壽	14
Gang	Comfortable Gang	康	11
Tae	Great Tae	太	4
Hwang	King Hwang	皇	9
Je	King Je	帝	9
Bo	Treasure Bo	寶	20

수강태황제보 보영의 글자 중 중앙 ‘태황제(太皇帝)’는 균일한 간격으로 중복되는 면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우측부터 2글자, 3글자, 1글자를 분포해 만든 어보는 면적 분할을 효율적으로 해 함께 보았을 때 어색함이 없다. 우측 2글자 ‘수강(壽康)’의 총 획수는 25획, 중앙 3글자 ‘태황제(太皇帝)’의 총 획수는 22획, 좌측 1글자 ‘보(寶)’의 총 획수는 20획이다. 또한 중앙 ‘태황제(太皇帝)’의 획수에 따라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태(太)’는 ‘황(皇)’와 ‘제(帝)’에 비해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Fig. 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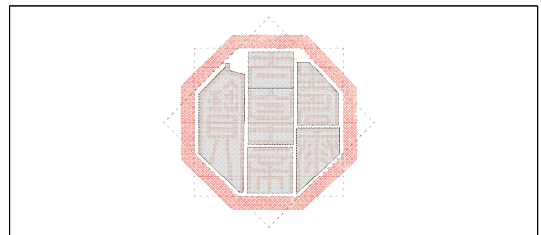


Fig.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Area

2.3.3.1.2 용어별 배치

수강태황제보의 보면은 좌측부터 <수강/태황제/보>로 나뉘어져있다. ‘수강’은 순종이 고종에게 올린 존호로 고종을 나타내고, ‘태황제’ 또한 1907년 양위사건으로 인해 황태자에게 양위하고 태황제가 된 고종을 의미한다. ‘보’는 어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강태황제보는 3가지 의미를 담은 글자가 용어별로 좌측, 중앙, 우측으로 나뉘어져있다.

2.3.3.2 시각요소

2.3.3.2.1 획의 형태

보면 획의 형태는 Fig. 7과 같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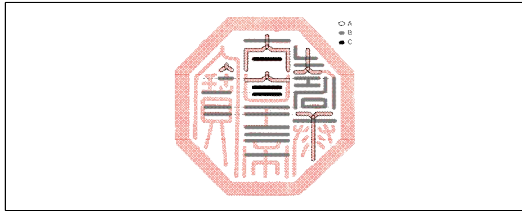


Fig. 7. The underside of a royal seal the shape of strokes

수강태황제보 글씨의 형태는 중복되는 문자모형이 많으며, 같은 굵기이다. 또한 글자 끝이 등극계 생겼으며 이 또한 비슷한 r값으로 이는 모두 계획을 한 일정한 모양의 타이포그래피라 볼 수 있다. 문자의 가로 세로 길이만 다를 뿐 그림의 A부분과 같은 모양은 수강태황제보 만의 특징이다. 또한 B부분은 글자의 일정한 높이와 간격을 보여준다. C부분은 형태가 중복되어 일치하는 모양을 보여준다.

2.3.3.3 상관요소

2.3.3.3.1 글자사이와 시각보정

After the visual correction between the letters of Bo-Myeon (original)	Before the visual correction between the letters of Bo-Myeon

Fig. 8. The visual correction between the letters of Bo-Myeon

수강태황제보의 글자사이는 2.5mm로 균일하다. 그런데 중앙상단에 '태황(太皇)'의 글자의 사이는 Fig. 8.과 같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시각보정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보정은 실제로는 다른 값으로 차이가 있지만 눈

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형태를 위해 보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보정이 없이 원칙대로 2.5mm의 간격을 두고 만든 가상의 어보를 본다면 차이는 명확하다.

이는 일정한 간격만을 생각하고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생각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다.

2.3.3.3.2 그리드

팔각형의 어보 형태는 사각형과 마름모를 겹친 형태에서 전체 그리드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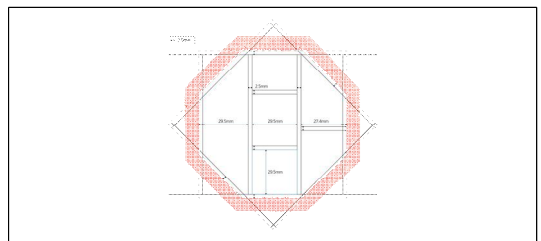


Fig. 9. The grid of Bo-Myeon

그리드는 전체적으로 글자사이 간격 2.5mm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 하단 '제(帝)'의 글자 크기는 29.5mm의 정사각형이다(Fig. 9 참고).

2.3.3.3.3 각도와 글자모양

수강태황제보 보영의 글자 중 좌측 '보(寶)', 우측'수강(壽康)'은 일정한 각도 (135°)를 유지하며 디자인되어있다. Fig. 10. 정사각형 하나와 45°기울어진 정사각형이 겹쳐진 모양인 8각형 어보는 특이한 형태 때문에 글자의 모양이 각도에 맞게 변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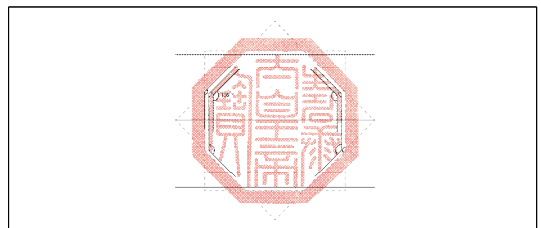


Fig. 10. The angle of Bo-Myeon

2.3.3.4 분석 결과

본 연구 내용은 Fig. 11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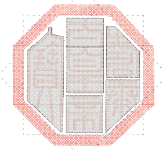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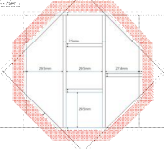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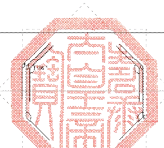
Element	Bo-Myeon
The number of letters and the area	
The shape of strokes	
The visual correction between the letters	
Grid	
Angle	

Fig. 11. The analysis table of Bo-Myeon

3. 한계점 및 결론

본 연구는 1907년에 제작된 수강태황제보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했다. 본래 어보는 인장의 쓰임새 중 하나인 위조방지 때문에 가독성과 판독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특유의 글자 형태는 각각의 인장마다 다르고 아름다움을 갖는다. 수강태황제보의 보문은 규칙이 있는 구조로 디자인되어있다. 유래가 없는 어보의 형태인 8각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6개의 한자가 들어있다. 기존의 4각형 어보들과 달리 완벽하게 오차가 없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규칙이 있으며 중복되는 비율과 디자인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디자인 역사이다.

어보의 서체에 관한 분석은 기존에 자료를 찾기 힘들다. 어보의 다양함과 보문에 관한 자세한 제작기록이 없기 때문이겠지만 지금이라도 연구를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REFERENCES

- [1] J. G., Kim. (2011). *This is the national se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oul : Parangsae media.
- [2] Namu.wiki. (2019). *National Seal*. Retrieved from <https://namu.wiki/w/>
- [3] Wikipedia. (2019). *Royal Seal*. Retrieved from <http://ko.wikipedia.org/wiki/>
- [4]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exhibition <The Return of the Royal Seals> exhibition pictorial record*. Seoul.
- [5]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7). *<Royal Investiture Book of the Joseon Dynasty>*. Seoul.
- [6] S. I Geun. (2013). *Korean seal history*. Seoul : Daunsaeem.
- [7]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06). Special Exhibition *<Seals from the Joseon Royal Collections> exhibition pictorial record*. Seoul.
- [8]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2). Special Exhibition *<Royal seals and symbols of Joseon dynasty> exhibition pictorial record*. Seoul.
- [9]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5). Permanent Exhibition *<Royal seal from old documents and books> exhibition pictorial record*. Seoul.
- [10]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0). *collection pictorial record <Royal Seal of Joseon>*. Seoul.
- [11] S. I. Geun. (2018). *National Seal and Royal Seal: Symbol of Royal authority and Royals*. Seoul : hyeonamsa.
- [12] S. I. Geun. (2010). *Go-Jong emperor secret national seal*. Seoul : Sowadang.
- [13]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9). *jade seal of imagine eulogistic posthumous title of a Go-Jong*. Retrieved from <http://www.gogung.go.kr/searchView.do?pageIndex=1&cultureSeq=00018559YU&searchelicDiv4=&searchGubun=ALL1&searchText=>
- [14] S. I. Geun. (2014). *The Value and Agenda on Seal of Joseon Royal Family, Mun hwa jae, 47(4), 192-209*.
- [15] W. Y. Hong, S. S., Yoen & S. Y. Min. (2012). *Typography Thousand and One Nights.*. Paju : Ahn Graphics.

박 윤 성 (Yoon-Sung Park)

【장학원】



- 1995년 5월 : Pratt Institute(BFA)
- 1997년 5월 : William Paterson Univ. Visual Art(MFA)
- 2003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영상, 시각디자인
- E-Mail : yspark@kgu.ac.kr

김 지 수(Ji-Su Kim)

학사학위



- 2017년 2월 : 경기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학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시각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관심분야 : 디자인
- E-Mail : kimjs304703@naver.com